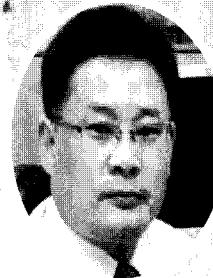


## 낙농 산업 전망



김 무 진

CJ제일제당 축우PM

### ◆ 2008년 축산산업을 돌아보며…

2008년은 지난 90년대 말 IMF라는 국가 경제위기를 다시 한번 머리에 떠오르게하는 한해였다. 특히 낙농산업에 있어서는 년초부터 년말까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2007년에 이어 년초부터 바이오에너지 생산 및 해상운임비 인상 그리고 국제사료작물의 작황부진 등의 이유로 국제곡물가격이 폭등하여 사료원료를 거의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축산 산업에 큰 영향을 주었고, 곧바로 사료가격인상으로 연결되어 축산농가들은 지금까지 생산비 가중이라는 어깨에 큰 짐을 지고 사업을 근근히 해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부터 국제 곡물가격도 하향 안정세로 다시 돌아서고 있고, 해상 운임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실제 국제 곡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옥수수 1톤의 가격은 6월 420달러에서 9월엔 333달러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 10월은 240달러로 내렸다. 같은 기간 동안 소맥과 대두박도 50%가량 하락한 상태다. 여기에다 중국의 베이징올

림픽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선박수요 감소 등으로 곡물수송에 따른 해상운임도 크게 인하됐다. 국제 곡물가격도 하향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고, 해상 운임도 큰 폭으로 떨어지자 축산농가들은 사료가격인하에 대한 기대로 가득차 있는 상태이지만, 현실은 냉혹하기만 했다. 산너머 산이라고 고곡물 가격의 파고를 넘어서고 보니 환율급등이라는 더 큰 파도가 우리 축산 산업 앞에 또 벼티고 있었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것이 사료업체들에겐 새로운 ‘복병’으로 떠올랐다. 국내 사료업체가 국제시장에서 곡물 1달러 어치를 구입하고 지불해야 하는 원화는 2007년 말에는 938원 정도였으나 올 8월 1,090원에 이어 최근에는 1,500원대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같은 환율불안 상태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화될 가능성마저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고, 환율도 1,800원까지 갈 것이라는 우려의 예상도 있어 국내배합 사료업체들은 국제 곡물가격이 떨어져도 사료가격 인하는 커녕

환율변동에 따른 엄청난 손실에 당황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2008년은 국내에 모든 축산연관 산업이 위축되었던 한해였던 것 같다.

## ◆ 국내 낙농산업은…

국내 낙농산업도 한치앞을 예측할 수 없는 축산산업 환경의 태풍을 피할 수는 없었다. 특히 조사료까지 해외에 의존하는 국내 낙농급여의 형태를 감안한다면 낙농농가의 어려움은 더 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렇지 않아도 2002년 원유생산제한제(쿼터제) 시행이후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사육두수와 농가수에 이러한 산업환경의 변화는 더욱더 낙농산업의 위축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

하지만 2008년은 낙농산업에 있어서 (-)의 현상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연초부터 원유가 인상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고 지난 3월 6일 원유가 인상을 위한 낙농진흥회 이사회 소집을 공식 요구한 것을 시

작으로 지루하고 치열한 유대협상이 시작되었고, 생산자와, 유업체, 정부 간의 지루한 공방이 이어졌으며 마침내 7월 18일 기본원유가 20.54% (120원) 인상안에 극적으로 합의되어 8월 16일부터 적용되었다.

기본 원유가 인상이라는 (+)의 효과가 수차례의 사료가격인상에 따른 생산비증가라는 어려움속에서도 국내 낙농농가가 그나마 벼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원유가 인상 이후 잉여원유차등가격제 개선 문제, 유업체별 쿼터물량 삭감의 현실화 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낙농가들의 어려움은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높은 사료가격과 국내 낙농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는 원유생산량의 감소를 유도하고 있다.

최근 들어 원유 생산량이 4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월 생산량이 16만 톤대로 하락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9월 중 원유 생산량은 16만7천955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 생산량이 16만 톤대로 하락한 것은 98

### 낙농가수, 사육두수 현황

(단위: 천두, 호, %)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6
총마리수	519	497	479	464	453	445
전년대비	-4.6	-4.1	-3.7	-3.1	-2.4	-1.8
낙농가수	10,514	9,612	8,923	8,260	7,657	7,219
전년대비	-10.3	-8.6	-7.2	-7.4	-7.3	-5.7
호당두수	49.3	51.7	53.7	56.2	59.2	61.7

자료: 가축통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계청)

년 2월 이후 10년 7개월만이다

유대인상이후 다소 인상된 유대 여파로 다소 원유생산량의 증가를 예상했지만 현실은 반대였다. 낙농농가들은 오히려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하는것보다 생산비용절감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

## ◆ 2009년 낙농산업 전망

다른 축종도 마찬가지지만 낙농산업도 2009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가장 관심의 초점은 사료가격 인하 부분 일 것이다. 하지만 2009년도는 2008년도처럼 곡물의 수요량의 증가가 공급량의 증가를 초과하거나, 해상운임과 같은 기타비용의 증가로 인한 사료가격 인상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진정되지 않고 있는 환율의 불확실성에 의해 사료가격이 좌우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실제 곡물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며, 기획보했던 고가의 곡물 소진이후에는 사료가격인하 요인이 있지만, 이 것도 환율이 안정된다는 전제하에서이다.

환율에 대한 예측은 2009년도에 들어 전반적인 하락세로 년평균 1,100원대로 보는 낙관적으로 전망하는데가 있는가하면, 반대로 2009년 상반기중에는 환율의 하락세는 기대하기 힘들고, 하반기나 2009년말에나 가야 하락세국면으로 들어설 수 있다고 부정적으로 전망하는데도 있다.

이것은 비단 배합사료의 원료가 되는 곡물 뿐만아니라 아직도 해외의존도가 높은 수입 건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수입건초도 현재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지만 국내 수입공급업체들도 환율 때문에 원활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환율 추이를 지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곡가사태는 사실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가 다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나라와 달리 우리 경우 생산비증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데나 사료의 해외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같은 취약한 구조로 인해 곡물가급등세 및 환율의 급등으로 인한 파장을 고스란히 국내축산업계가 떠안게 되어있다.

하지만 위에서 기술한 우리 농가를 힘들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현상들은 농가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원/달러 환율의 안정화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힘든 국내 축산 산업구조의 문제 등은 앞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 숙제인 것은 사실이다.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앞으로 축산 산업의 생존을 위해 축산농가와 그와 연관된 사업의 주체들이 다가올 산업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해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 ◆ 맷음말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생산비 절감도 중요하지만 낙농사업의 존폐는 생산성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특집

2008년 뜨거운 여름, 국내 낙농가들의 하나된 모습으로 어렵게 만들어낸 유대인상이라는 큰결과를 최대한 활용해야한다. 원유가격 120원인상의 의미는 착유우 30두 규모의 목장에서 년간 4천만원이상의 추가 수입을 뜻한다. (2007년 검정농가 평균산유량 기준 산출)

2008년 하반기 높은 사료값으로 인해 농장에서 벌어지는 사료줄여먹이기, 그로 인한 유생산성저하 및 BCS 저하 초래등의 앞으로 벌고 뒤로 까지는 현상들을 볼 때 축산관련업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웠다.

목장의 생산성을 위해서 사료회사도 사용

원료에 대한 정확한 원료평가 기술로 실제 낙농목장에서 과부족이 없이 사료내 영양소 이용률 최대화하고, 보다 안정된 품질의 제품과 목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목장은 단순히 소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경영인의 마인드로 젖소 한 마리 한 마리 개체 관리를 통해 최대한의 유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상호간의 노력만이 산업환경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어려운 축산 현실을 넘어서, 낙농사업의 지속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지금이 목장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볼때다. ■■■